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table>
<tr><td>사업명</td><td colspan="6"><‘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td></tr>
<tr><td>사업개요</td><td colspan="6">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td></tr>
<tr><td>구술자명</td><td>조유형</td><td>성 별</td><td>남성</td><td>출생연도</td><td colspan="2">1958년</td></tr>
<tr><td>면담자</td><td>표기자</td><td>소 속</td><td>미추홀학산문화원</td><td>검독자</td><td colspan="2"></td></tr>
<tr><td>면담장소</td><td colspan="2">학산문화원 동아리실</td><td>면담지원</td><td colspan="3">이혜숙. 박인옥 멘토</td></tr>
<tr><td>면담 일시</td><td colspan="2">2026 년 8 월 7 일</td><td>회 차</td><td>1</td><td>시 간</td><td>2시간 20분</td></tr>
<tr><td>자료번호</td><td colspan="6"></td></tr>
<tr><td>구술 개요</td><td colspan="6">면담 참여자 소개로 인터뷰가 시작되어 구술자의 개인 신상과 삼광유리에 입사하게 된 계기 및 회사에 대한 첫 인상. 포장과 알바로 시작해서 정식 입사 후 품질관리 일을 함. 유리병은 배합. 용해. 성형. 서냉. 인쇄. 포장 순서로 유리병 만듬. 용해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가장 힘듬. 수당이 더 추가 됨. 1994년에 동양화학에 합병되며 급여 올라감. 삼광의 노조는 주변과 연대 할 환경이 안돼서 비교적 활성화가 어려운 편 이었음. 유니드 가스 누출 사고시 노조 활동 이야기. 품질관리 일을 할 때 대부분 육안으로 불량을 잡아내었으나 팩커(병을 한꺼번에 많은양을 집어 이동시키는 자동화 기계)만 자동화. 공무과로 옮기면서 노조 지부장을 맡게 됨. 1994년에 동양화학에 합병한 배경. 델몬트병 회수율이 낮았던 이유. 플라스틱 용기가 유행이던 시기에 삼광에서도 PET병을 생산해서 큰 타격은 없었음. 30대에 삼광유리 노조 지부장으로 추대 됨. 지부장 전에 EYC 활동을 했음. 노활추(노동조합활성화추진회)는 주안역 뒤편 ‘인천집’에서 자주 모여 활동 이야기 나눔. 3자 노조는 삼광 회사 내에 들어올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노활추에서 회사에 진입했다하여 해고 당함. 법원 판결에서 승소. 94년 본사 영업부로 발령. 삼광유리 현장직 기본급이 낮은편이라 그 부분 협상이 어려웠음. 본사 영업부로 복직하게 된 경위와 TQM 사무국에서 독학으로 컴퓨터 익힘. 동양화학과 통합 후에 동양화학에서 임원들 발령받아 왔으나 서로 마찰이 좀 있었음. 영업부에서 얼마 못 버틸거라는 주변의 생각과는 달리 3년 동안 영업일을 하게 됨. 주 거래처는 롯데칠성 기업체라서 영업일을 수월하게 함. 살면서 적을 만들지 않음. 각자 다름을 받아들임. 해고 후 복직하기까지 1년 동안 비디오가게를 하며 동네 사랑방 같은 곳으로 운영 함. 삼광이 첫 회사이자 마지막 회사가 되길 바랐는데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어 좋았음. 퇴직 후에는 부평골마을관리소협동조합. 맑은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잘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단체로 만드는 것이 마지막 과제.
1인 가구 생활지원. 마을 장례(고독사)지원. 유품정리. 긴급청소. 집수리 사업. 철구조물 사업(용접, 절단) 인테리어 목공. 부평 풍물. 성당 풍물 연합팀에서 활동.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td></tr>
</table>

주요 색인어	부평, 삼광유리, EYC, 삼광유리 노조지부장, 노활추, 인노협, 협상 의제, 3교대, 유리병 공정, 인천집, 해고, 노동위원회, 복직, TQM 사무국, 부평골마을관리소협동조합, 맑은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인 가구 생활지원, 마을 장례(고독사)지원, 유품정리, 긴급청소, 집수리 사업, 철구조물 사업(용접, 절단), 인테리어 목공, 부평 풍물, 성당 풍물 연합,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멘트 : 일시 및 참여자 소개 - 일시 및 참여자 소개	(00:00:05~00:01:28)	
2. 태생과 입사 - 부평 태생 - 삼광에 입사 계기 및 회사에 대한 첫 인상 - 포장과 알바로 시작. 정식 입사 후 품질관리 일	(00:01:29~00:10:40)	
3. 삼광유리 공장 내 모습 - 배합. 용해. 성형. 서냉. 인쇄. 포장 순서로 유리병 만듬 - 용해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가장 힘듬. 수당이 더 추가 됨 - 1994년에 동양화학에 합병되며 급여 올라감. - 삼광의 노조는 주변과 연대할 환경이 안돼서 비교적 활성화가 약한 편 이었음. - 유니드 가스 누출 사고 시 노조 활동 이야기	(00:10:41 ~ 00:33:48)	
4. 포장과- 품질관리- 공무과 부서 이동 - 품질관리 일을 할 때 대부분 육안으로 불량을 잡아내었으나 팩커(병을 한꺼번에 많은양을 집어 이동시키는 자동화 기계)만 자동화. - 공무과로 옮기면서 노조 지부장을 맡게 됨.	(00:33:49 ~ 00:42:50)	
5.동양화학 계열사 삼광유리 - 1994년에 동양화학에 합병한 배경 - 델몬트병 회수율이 낮았던 이유. - 플라스틱 용기가 유행이던 시기에 삼광에서도 PET병을 생산해서 큰 타격은 없었음.	(00:42:51 ~ 00:52:27)	
6. 노동조합 활동 - 30대에 삼광유리 노조 지부장으로 추대 됨. - 지부장 전에 EYC 활동을 했음. - 노활추(노동조합활성화추진회) - 주안역 뒤편 '인천집'에서 자주 모여 활동 이야기 나눔. - 삼광유리 현장직 기본급이 낮은편이라 그 협상이 어려웠음. - 3자 노조는 삼광 회사 내에 들어올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노활추에서 회사에 진입했다하여 해고 당함	(00:52:28 ~ 01:10:51)	

- 법원 판결에서 승소. 94년 본사 영업부로 발령		
7.해고와 복직, 그리고 퇴직	(01:10:52 ~ 01:47:30)	
- 본사 영업부로 복직하게 된 경위와 영업부로 가기 전 TQM 사무국에서 독학으로 컴퓨터 익힘. - 동양화학과 통합 후에 동양화학에서 임원들 발령받아 왔으나 서로 마찰이 좀 있었음. - 영업부에서 얼마 못버틸거라는 주변의 생각과는 달리 3년 동안 영업일을 하게 됨. - 주 거래처는 롯데 칠성 기업체라서 영업일을 수월하게 함. - 살면서 적을 만들지 않음. 각자 다름을 받아들임. - 해고 후 복직하기까지 1년 동안 비디오가게를 하며 동네 사랑방 같은 곳으로 운영 함. - 삼광이 첫회사이자 마지막회사가 되길 바랐는데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어 좋았음.		
8. 새로운 삶	(01:47:31 ~ 02:19:15)	
-부평골마을관리소협동조합. 맑은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잘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단체로 만드는 것이 마지막 과제. - 1인 가구 생활지원. 마을 장례(고독사)지원. 유품정리. 긴급청소. 집수리 사업. 철구조물 사업(용접, 절단) 인테리어 목공. - 부평 풍물. 성당 풍물 연합팀에서 활동.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